



통진레코파크 2단계 증설사업 현장.



위 통진레코파크 조감도, 아래 공공하수처리장 안전점검.

# 통진·고촌·김포레코파크 용량 증설... 신도시등 미래수요 대응 하수행정 박차

통진레코파크 2만8000톤 2단계 증설... 내년 8월 가동  
고촌 1만1400톤·김포 2만5000톤 증설... 2030년 완료  
공공하수처리시설 15곳서 연간 5200만톤 안정적 처리



위 하수관로 준설 현장, 아래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경기 김포시가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환경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신규 택지 조성 이 어지면서 증가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는 통진·고촌·김포레코파크 증설사업과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장래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시설증설을 넘어 도시 성장 속도에 맞춘 안정적인 물환경 체계 구축이 핵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행정 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행정"이라며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생활환경 개선 을 균형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물환경 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는 시의 미래 물환경 인프라 구축과 하수처리 기반 확충, 친환경 물순환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 적으로 살펴본다.

**레코파크 증설사업 순항**  
특히 통진레코파크는 2027년 8월 가동목표로 2만8000톤의 2단계 증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며, 고촌레코파크는 1만1400톤, 김포레코파크는 2만5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2030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확보하는 등 장래 하수처리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오수관로와 중계펌프장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통진레코파크 차집관로와 제2정수장 도수관로 공사는 동일 구간에 병행매설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2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고 3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반복적인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면서 교통 통제와 소음,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시는 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공



하수관로 조사운영 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15곳을 운영하며 연간 520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 정비와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극저성 폭우에 대비한 침수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기 전 하수관로 준설과 상층 침수구역 사전점검,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빙기·우기 대비 공사현장 및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본격 추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을 통해 폐기물 처리 효율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물 재이용 관리체계 변경 수립 운영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리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방류수 수질검사와 악취 민원 다발지역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음식물과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포집과 연질검점을 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포=문현식 기자 mcs@sinimilbo.co.kr



## 시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양천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양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YANGCHEON-GU COUNCIL